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우리 반은 학급별 체험학습으로 △△시 ‘문화의 거리’에 다녀왔는데요, 오랜만에 여러 가지 체험을 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은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공공디자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꿈은 디자인 분야에서 일하는 것인데, 그래서인지 발표 준비를 하면서 공공디자인에 더 많은 관심이 생겼습니다.

공공디자인은 공공 공간이나 시설의 심미적, 기능적 가치를 높이는 행위인데요, 말로는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지난번 발표에 대한 상호 평가에서 매체를 활용하고 사례를 들어 주면 더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래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진을 제시하며) 이것은 □□시의 정류장 모습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비와 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튼튼한 구조물을 사용해 정류장을 만들고 주변 경관과의 조화까지 고려한 예입니다. (사진 속 한 부분을 가리키며) 틀에 박힌 모습에서 벗어난 노선 안내판이 보이시나요? 이것도 정류장이 단순히 지루한 기다림의 공간이 되지 않도록 공공디자인한 것이랍니다.

공공디자인의 중요한 기능은 디자인이라는 행위를 통해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는 데에 있습니다. 또 지역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데에도 있는데요, 이러한 예로 마을의 역사를 벽화로 표현한 ○○시의 골목길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골목길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 그 지역에 대해 가지게 되는 첫인상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들이 공공디자인을 통해 지역의 특색을 성공적으로 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디자인은 사회의 미적 수준을 보여 주며 특정 개인을 위해 사적인 공간을 디자인하는 것과 달리 사회 구성원들을 두루 위하는 디자인이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제 발표를 통해 그동안 무심결에 지나쳤던 공공디자인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마침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공디자인’이라는 주제로 학교 옆 도서관에서 강연이 열린다고 하니 가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공디자인의 목적을 밝히며 그 실현 방안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 ② 공공디자인의 개념과 기능을 설명하며 공공디자인의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 ③ 공공디자인의 발전 가능성을 소개하며 이론적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④ 공공디자인에 대한 오해를 언급하며 공공디자인이 사적인 공간을 디자인하는 것보다 유용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⑤ 공공디자인이 주목을 받는 이유를 분석하며 공공디자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2. 다음은 위 발표를 위해 사전에 세운 계획이다. 발표 내용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 발표 목적 : 정보 전달
- ◆ 예상 청중 : 고등학교 2학년 우리 반 학생들

항목	발표 계획
지역	학교 옆 도서관에서 우리 지역의 공공디자인에 대해 알 수 있는 강연이 열린다고 하니, 참석해 볼 것을 권해야겠다. .... ①
경험	체험학습을 다녀왔으니, 그때의 경험을 언급하며 발표를 시작해야겠다. .... ②
관심사	발표 내용과 관련 있는 진로 분야에 관심이 있으니, 공공디자인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소개해야겠다. .... ③
요구	발표에서 매체를 활용해 주기를 바라니, 발표 중 시각 자료를 보여 주어야겠다. .... ④
	발표 내용과 관련된 사례를 들어 주길 바라니, 공공디자인을 활용한 예를 제시해 주어야겠다. .... ⑤

3. 다음은 위 발표를 들은 후 학생이 떠올린 생각이다. 이를 바탕으로 발표자에게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요즘 공공디자인 사업을 통해 골목길을 문화의 거리로 다시 꾸며 지역의 특색을 살린 곳이 많다고 해서 나도 몇 군데를 찾아가 봤어. 그런데 골목길들이 서로 비슷비슷해서 좀 실망스러웠어. 다른 지역의 잘된 사례를 무분별하게 따르다 보니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아.

- ①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으로 문화의 거리 조성을 말씀했는데도, 이 외에도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은 다양하지 않을까요?
- ② 공공디자인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 말씀하지 않았는데요, 구체적으로 누가 공공디자인에 참여할 수 있나요?
- ③ 공공디자인이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요, 시도별로 공공디자인이 적용된 사례가 얼마나 되나요?
- ④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공공 공간이나 시설이라고 했는데, 만약 잘 디자인된 사적 공간이 대중에게 개방된다면 이것도 공공디자인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요?
- ⑤ 공공디자인을 통해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들이 지역의 특색을 잘 살리고 있다고 했는데, 공공디자인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4~7] (가)는 학생들이 실시한 토의의 일부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준원’이 작성한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보연** : 지금부터 ○○고등학교 홍보부의 학생 소식지 작성을 위한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의 역사와 문화’라는 주제에 적합한 제재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윤서** : 저는 학교 연혁관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지난번 학생 설문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오랜 전통을 지닌 우리 학교의 발자취를 확인할 수 있는 연혁관을 방문한 학생이 매우 적다는 것에 놀랍기도 하고 아쉽기도 했어요.

**준원** : 물론 연혁관은 학생들의 관심이 필요한 곳이라는 [A] 점에서 좋은 제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난번 여름 소식지에 ‘우리 학교 시설물 안내’라는 내용으로 연혁관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제재가 중복되어 식상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학교 본관에 대한 소식을 알렸으면 좋겠어요.

**보연** : 우리 학교 본관에 대한 소식이라면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준원** : 학교 앞 사거리 현수막에서 우리 학교 본관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을 보았어요. 등록문화재는 현재 사용 가능하며 문화적, 역사적인 가치를 인정받은 근대 건축물이나 물건 중에서 지정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자세히 알렸으면 합니다. [B]

**윤서** : 우리 학교 건물이 문화적, 역사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싶다는 것이군요?

**준원** : 맞아요. 사실 저도 그 현수막을 보고 등록문화재의 정의를 찾아보며 우리 학교의 역사도 생각해 보았어요. 이런 내용을 학생들과 나눌 수 있도록 소식지의 제재로 정하면 좋겠습니다.

**보연** : 지금까지 우리 학교 연혁관 소개, 우리 학교 본관의 등록문화재 지정 알림이라는 제재가 나왔습니다. 어느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윤서** : 듣고 보니 준원의 제재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본관과 학생들의 경험을 연결지어 글을 쓴다면 학생들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글이 될 것 같아요.

**준원** : 지난번 소식지의 표현이 단조로웠다는 학생들의 평가가 있었는데 이를 반영해서 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 독자들의 궁금증을 유도하는 글을 썼으면 합니다. 또 관심을 끌 수 있는 제목을 붙여도 좋을 것 같아요.

**윤서** : 글을 쓸 때 공신력 있고 출처가 분명한 자료를 활용하면 글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보연** : 우리 학교 연혁관에 대한 의견과 학교 본관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본관의 등록문화재 지정과 관련한 내용으로 학생 소식지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서는 관련 자료를 찾고 이를 바탕으로 준원이가 초고를 작성하기로 하죠. 그리고 다음 토의에서 글을 함께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등록문화재로 다시 태어난 우리의 자랑, 학교 본관  
졸업식과 체육대회 등 학교 행사 사진에 추억으로 등장하

는 건물. 매점이 있어 하루에도 몇 번씩 찾게 되어 우리들의 사랑을 받는 장소. 우리 학교에서 가장 오래되고 적벽돌의 멋진 외관을 뽐내는 학교의 상징. 맞습니다. 바로 우리 학교의 본관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등록문화재! 생소하시죠? 그러면 그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재청 자료에 따르면 근현대의 문화, 역사, 지역의 기념이 되거나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는 건물, 다리, 책 등 사용 가능한 건축물과 물건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한다고 합니다. 특히 문화재로서의 가치에 비추어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대상을 등록문화재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 학교 본관이 자랑스럽게도 이런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본관이 우리 지역 최고(最古)의 서구식 근대 건축물로 지역적,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본관은 근대 역사의 흔적을 간직하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가 살아 숨 쉬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관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 학교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본관에서 등록문화재가 주는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4. 다음은 ‘보연’이 토의를 준비하며 작성한 메모이다. ㉠~㉣ 중 (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고른 것은?

- 토의 문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처음 발언 시 토의 주제를 제시하자. .... ㉠
- 참여자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설명을 요구하자. .... ㉡
- 토의 중 참여자 간 존중을 유지하기 위해 언어 예절의 중요성을 언급하자. .... ㉢
- 토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토의의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자. .... ㉣
- 토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토의 참여자의 발언 순서를 정하자. .... ㉤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5. [A]와 [B]에 나타난 토의 참여자들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 ‘윤서’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여 의견의 타당성을 높이고 있다.  
② [A] : ‘준원’은 발언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며 상대의 의견을 평가하고 있다.  
③ [A] : ‘준원’은 상대 의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④ [B] : ‘준원’은 개인적 경험을 언급하여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⑤ [B] : ‘윤서’는 상대의 발언을 재진술하며 상대의 의견을 확인하고 있다.

6. (가)와 (나)를 고려할 때,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연** : 토의의 다양한 제안 사항 중에서 윤서의 제안을 어떻게 반영해서 글로 쓸 생각이야?  
**준원** : 어, 나는 \_\_\_\_\_

- ① 제재의 의미를 알리자는 제안을 반영하여, 학교의 역사적 사건을 제시해 독자의 이해를 도울 생각이야.
- ②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제목을 붙이자는 제안을 반영하여,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 제목을 붙일 생각이야.
- ③ 지난 소식지에 대한 학생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등록문화재에 대한 질문으로 학생들의 궁금증을 유발할 생각이야.
- ④ 제재와 관련된 경험을 연결하자는 제안을 반영하여, 등록문화재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제시해 학생과의 관련성을 드러낼 생각이야.
- ⑤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자는 제안을 반영하여, 등록문화재와 관련된 공공기관에서 찾은 정보를 제시해 글의 신뢰성을 높일 생각이야.

7. <보기>는 (나)를 보완하기 위해 찾은 자료이다. <보기>를 활용하여 **특별함**을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 등록문화재 제237호 서울 구 대법원 청사는 1928년 경성 재판소로 건립되어 현재는 서울시립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즉 ㉠ 근대의 건축물을 현재에는 문화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 문화재청은 ㉡ 등록문화재의 지정을 늘리기 위해 등록문화재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외관의 4분의 1 이상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 용도를 변경하여 앞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 ① ㉠을 활용하여 본관이 문화 공간으로서의 문화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구체화한다.
- ② ㉡를 활용하여 본관이 국가 지정을 통해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인정받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구체화한다.
- ③ ㉢를 활용하여 본관이 수리가 필요한 특별한 대상이라는 내용으로 구체화한다.
- ④ ㉠과 ㉡를 활용하여 본관을 문화 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해 국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체화한다.
- ⑤ ㉠과 ㉢를 활용하여 본관은 과거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 이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구체화한다.

[8~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 **작문 과제** : 자신의 동아리와 관련된 웹 사이트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개선을 건의하는 글 쓰기  
• **예상 독자** : 웹 사이트 ‘독도 336’ 운영 담당자

**[학생의 초고]**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서 독도 탐구 동아리 부장을 맡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저희 동아리를 대표하여, 독도의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독도 336’에 두 가지 사항을 건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독도 336’의 내용 영역으로 ‘독도의 자연 환경’을 신설하였으면 합니다. 현재 ‘독도 336’은 크게 ‘독도의 역사’와 ‘독도의 가치’로 그 내용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독도의 역사’에서는 세계 여러 문헌에 나타나 있는 독도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독도의 가치’에서는 독도 근해의 풍부한 수산 자원과 해저에 매장되어 있는 천연 자원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독도에 관한 역사적 사실과 독도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있는 반면, 독도의 지리적·생태적 특성과 같은 자연 환경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독도 336’의 소개란을 보면 독도가 천연기념물 제336호라는 점에 착안하여 웹 사이트의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 이런 작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독도의 자연 환경과 관련된 내용의 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모바일 기기 이용자를 고려하여 ‘독도 336’의 모바일 웹 사이트를 구축하였으면 합니다. 현재 PC를 이용하여 ‘독도 336’에 들어가 보면 글과 사진, 동영상 등의 자료를 쉽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로 ‘독도 336’에 접속해 보면 PC에서 보았던 웹 사이트의 형태가 모바일 기기의 작은 화면에 그대로 담겨 있어서 자료의 열람이 불편합니다.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독도 336’의 이용자가 크게 감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도 336’은 독도의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웹 사이트로서 그 위상에 맞도록 전면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내용 영역을 추가하고 모바일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웹 사이트 운영자의 인식 전환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8. ‘학생의 초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문제 상황을 드러내기 위해 해당 웹 사이트의 운영 실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② 논의의 필요성을 드러내기 위해 자연 환경적 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을 제시하였다.
  - ③ 문제 해결 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웹 사이트의 구축 절차를 제시하였다.
  - ④ 예상 독자의 관심을 반영하기 위해 유사한 성격의 타 웹 사이트를 비교 사례로 제시하였다.
  - ⑤ 주장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동아리에서 수행한 독도 관련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9.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의 초고’를 보완하려 한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자 료> —

(가) 학생 인터뷰

“발표 준비를 하면서 ‘독도 336’에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스마트폰으로는 글자가 너무 작게 보여 긴 글을 읽기가 어려웠는데 이 점이 개선된다면 더욱 자주 이용할 것 같아요.”

(나) 신문 기사

본격 모바일 시대… 모바일 인터넷 사용량, PC 첫 추월  
통계 전문 회사 A는 인터넷 사용량을 집계한 이후 모바일 기기 비중이 PC를 앞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또한 A사 관계자는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보다 심화될 것”이라며, “모바일 친화적인 웹 사이트를 구축해야만 이용자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 연구 보고서

최근 독도 환경 조사에서 2종의 신종 선형동물이 발견되어 이를 ‘독도’와 ‘한국’이라는 명칭이 포함된 종명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약 40여 종 이상의 신종 미생물 박테리아가 독도에서 발견되어 국제학회에 발표되기도 하였다.

- ① (가)를 활용하여 모바일 기기에서 ‘독도 336’을 이용할 때 불편함을 겪은 사례로 소개해야겠군.
- ② (나)를 활용하여 모바일 기기를 통한 인터넷 이용이 많아지고 있다는 내용의 근거로 제시해야겠군.
- ③ (다)를 활용하여 ‘독도의 자연 환경’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 사례로 제시해야겠군.
- ④ (가)와 (나)를 활용하여 모바일 웹 사이트 구축이 이용자 감소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해야겠군.
- ⑤ (나)와 (다)를 활용하여 모바일 기기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학술 자료가 필요함을 강조해야겠군.

10. <보기>는 ‘동아리 부원의 검토 의견’과 이에 따라 학생이 고쳐 쓴 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동아리 부원의 검토 의견]

글의 성격을 고려하여 (        ㉠        )가 잘 드러나도록 마지막 문단을 고쳐 쓰면 좋겠습니다.

[고쳐 쓴 글]

‘독도 336’은 독도의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웹사이트로서 그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독도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한 바가 큼니다. 위와 같이 내용 영역을 추가하고 모바일 편의성을 개선한다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독도의 다양한 특성과 가치를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① ‘독도 336’의 의의와 건의 내용의 전체
- ② ‘독도 336’의 한계와 건의 내용의 전체
- ③ ‘독도 336’의 의의와 건의 내용의 기대 효과
- ④ ‘독도 336’의 한계와 건의 내용의 기대 효과
- ⑤ ‘독도 336’의 개선 방향과 건의 내용의 전체

-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근은 파생이나 합성 등 조어(造語) 과정에 참여하는 요소 중 의미상 중심이 되는 부분을 말하며, 어간은 용언이 활용을 할 때 중심이 되는 줄기 부분으로서 활용에서 어미에 선행하는 부분을 말한다. 예를 들어 ‘말기다’에서 ‘말-’은 어근이며 ‘말기-’는 어간이다.

어근이나 어간에 결합하여 특정한 의미나 기능을 부여하는 형태소를 접사라고 한다. 접사는 일반적으로 어근이나 어간과 함께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문장에서 단독으로 쓰이지 않는다. 접사는 기능에 따라 단어 파생에 기여하는 ㉠ 파생 접사와 활용할 때 어간에 결합하여 문법적인 기능을 표시하는 굴절 접사로 나누기도 한다. 어근의 앞에 위치하는 접두사는 굴절 접사가 없어 모두 파생 접사이고, 어근의 뒤에 위치하는 접미사는 굴절 접사와 파생 접사가 모두 존재한다. 굴절 접사는 흔히 ㉡ 어미라고 하는데 접사라 하면 일반적으로 파생 접사만을 가리킨다. 결국 접사는 좁은 의미로는 파생 접사만을 의미하고 넓은 의미로는 굴절 접사와 파생 접사를 모두 포함한다.

파생 접사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지만, 굴절 접사인 어미는 그렇지 않다. 예를 들면 ‘구경꾼’은 파생 접사 ‘-꾼’이 어근 ‘구경’과 결합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단어이고,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는 ‘구경’과는 별개의 단어로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된다. 이에 비해 어간 ‘먹-’에 어미가 결합한 ‘먹지, 먹자, 먹어서’ 등은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되지 않고, 기본형인 ‘먹다’만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된다.

특히 ㉢ 파생 접사는 어근과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어근의 품사를 바꾸기도 하고 바꾸지 않기도 한다. 예를 들어 ‘군소리’에서 접두사 ‘군-’은 ‘쓸데없는’이라는 뜻으로, 어근인 ‘소리’가 나타낼 수 있는 뜻을 일부 제한할 뿐 품사를 바꾸지 않는다. 하지만 ‘놀이’는 동사의 어간 ‘놀-’을 어근으로 하여 접미사 ‘-이’가 붙어 만들어진 명사이다. 즉 접미사 ‘-이’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품사를 바꾸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군-’과 같이 어근의 품사를 바꾸지 않는 접사를 한정적 접사라 하고, ‘-이’와 같이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접사를 지배적 접사라 한다.

11. 다음 문장에서 ㉠, ㉡에 해당하는 예를 찾아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말썽꾸러기였던 나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부모님의 드높은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 ① ‘드높은’의 ‘드-’는 ㉠에 해당하는 예로 단어 파생에 기여하는 기능을 하는군.
- ② ‘말썽꾸러기’의 ‘-꾸러기’는 ㉡에 해당하는 예이며, ‘말썽꾸러기’는 ‘말썽’과 별개의 단어이겠군.
- ③ ‘되었다’의 ‘-었-’은 ㉡에 해당하는 예로 어간에 결합하여 특정한 기능을 부여하는 형태소이군.
- ④ ‘깊이’의 ‘-이’는 ㉡에 해당하는 예로 문법적인 기능을 표시하는 역할을 하는군.
- ⑤ ‘흐르고’의 ‘-고’는 ㉡에 해당하는 예이며, ‘흐르다’는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되었겠군.

12. 밑줄 친 단어 중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의 친구는 행복하였다.
- ② 그녀의 머릿결이 찰랑거린다.
- ③ 나와 그녀의 견해차를 좁혔다.
- ④ 아름다운 가을 하늘이 높다랗다.
- ⑤ 열심히 공부한 내가 자랑스럽다.

13. 다음은 ‘문장의 짜임’에 대해 활동한 것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목표

안건문장의 특징을 이해한 후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겹문장을 만들 수 있다.

내용

※ 다음의 [자료]를 안건문장으로 활용하여 <조건>을 충족하는 문장을 만드시오.

[자료]

◦ 꽃이 봄에 활짝 피다.

◦ 봄이 오다.

<조건>

◦ 명사절과 관형절이 있는 겹문장을 만들 것.

결과

㉠

- ① 봄이 오면 꽃이 활짝 핀다.
- ② 꽃이 활짝 피는 봄이 온다.
- ③ 나는 봄이 오고 꽃이 활짝 피기를 바란다.
- ④ 나는 꽃이 활짝 핀 봄이 오기를 기다린다.
- ⑤ 나는 봄이 와서 꽃이 활짝 피기를 소망한다.

14. <보기>의 ㉠~㉥을 활용하여 현대의 ‘구개음화’를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맏이[마지], 같이[가치]

㉡ 밭이[바치], 밭을[바틀]

㉢ 굳히다[구치다], 닫히다[다치다]

㉣ 밀이[미치], 끝인사[끄딘사]

㉤ 해돋이[해도지], 견디다[견디다]

- ① ㉠을 보니, ‘ㄷ’이나 ‘ㅌ’이 끝소리일 때 구개음화가 일어나는군.
- ② ㉡을 보니, ‘ㅌ’이 특정한 모음과 만날 때 구개음화가 일어나는군.
- ③ ㉢을 보니, ‘ㄷ’ 뒤에서 ‘ㅎ’이 탈락할 때 구개음화가 일어나는군.
- ④ ㉣을 보니, ‘ㅌ’ 뒤에 실질 형태소가 올 때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군.
- ⑤ ㉤을 보니,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군.

15. <보기>의 설명을 참고할 때,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일반적으로 중세 국어의 주격 조사는 앞에 결합하는 체언의 끝소리에 따라 달라졌다. 체언의 끝소리가 자음일 때 ‘이’가 나타났고, 체언의 끝소리가 모음 ‘ㅣ’도, 반모음 ‘ㅍ’도 아닌 모음일 때는 ‘ㅣ’가 나타났다. 그런데 체언의 끝소리가 모음 ‘ㅣ’이거나, 반모음 ‘ㅍ’일 때는 아무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았다.

◦ ㉠ 가칠 프러  
(뱀이 까치를 물어)

◦ ㉡ 기픈 남근  
(뿌리가 깊은 나무는)

◦ ㉢ 세상에 나매  
(대장부가 세상에 나와)

- |   |     |     |      |
|---|-----|-----|------|
|   | ㉠   | ㉡   | ㉢    |
| ① | 뱀얍  | 불휘ㅣ | 대장뷔  |
| ② | 뱀얍  | 불휘ㅣ | 대장뷔ㅣ |
| ③ | 뱀야미 | 불휘  | 대장뷔  |
| ④ | 뱀야미 | 불휘  | 대장뷔ㅣ |
| ⑤ | 뱀야미 | 불휘ㅣ | 대장뷔  |

[16~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근대 철학은 근대 과학의 양적인 크기를 중시하는 사고를 ㉠ 수용하며 발달했다. 고대 과학이 사물 변화의 질적인 부분에 주목했던 것과 달리 근대 과학은 갈릴레오의 “자연이라는 책을 펴 보라. 거기에는 수(數)라는 글자로 가득 차 있다.”라는 발언에 나타나듯 양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즉 양화할 수 있는 것을 과학으로 간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근대 과학은 미리 수학적으로 설정한 믿음을 통해 자연에 접근하였다. 일례로 케플러는 우주가 기하학적인 원리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믿음에 따라, 이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자연 세계에 대하여 기하학과 같은 수학적 관점의 선형적 태도를 취한 것이다. 이런 태도는 근대 철학의 이성론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수학에 심취했던 근대 철학자 데카르트는 선형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믿는 ㉡ 직관을 통해 인식한 것들로 세계에 접근하려 하였다. 직관은 ‘순수한 정신의 의심할 여지없는 파악이며, 이것은 오직 이성의 빛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그 어떠한 의심 없이 분명한 인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 데카르트는 의심할 수 없는 것을 찾기 위해 대상을 직관으로 분절하여 더 나눌 수 없는 단순 본성을 찾고, 이 단순 본성들을 복합한 개념을 통해 세계에 대한 이해를 ㉢ 확장하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이후 근대 철학의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그런데 현대 철학자 베르그송은 이러한 근대 철학의 흐름에 반발한다. 그는 이성이 세계를 분절시키며, 질적인 시간마저 양적으로 쪼개는 일을 한다고 이야기한다. 베르그송은 세계의 사물들이 서로 경계가 모호한 채로 연속적인 전체를 이루고, 서로 수많은 관계 속에 처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성이 이러한 세계를 분절시킴으로써 전체성을 잃게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세계에 대한 통찰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베르그송은 세계를 통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성 대신 ㉣ 직관과 지속을 제시한다. 그의 직관은 공감적 경험이 자 통합적 경험을 의미한다. 즉 그의 직관은 사물의 내부로 들어가 서로를 느끼게 되는 공감적 경험을 통해 각각의 이질성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하나가 다른 하나로 스며가면서 전체를 향해 통합되는 경험인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오렌지색에 공감하는 과정을 보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직관을 통해 공감을 확장하려는 노력을 하면, 가장 어두운색으로서의 붉은색과 가장 밝은색으로서의 노란색 사이의 이질적인 다양한 색들이 있음을 경험할 수 있으며, 다시 그것들이 모호한 경계 속에서 스며가면서 통합되는 과정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베르그송은 공감과 통합은 지속되는 시간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근대 철학의 이성론은 시간을 분절하여 공간 안에 정지된 상태로 보았지만, 베르그송은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기 때문에 오히려 공간적인 것이 시간적인 것에서 영향을 받아 생긴다는 주장을 하였다. 예를 들어 활짝 핀 장미꽃을 볼 때, 우리는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장미꽃을 보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꽃잎이 모두 떨어진 가지만을 보게 된다. 이전에 장미꽃이 차지하고 있던 공간은 비었고, 이는 시간에 의해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시간

이 양적인 변화를 담은 시간이 아닌 개인 체험이 반영된 질적인 시간임도 주장하였다.

미술사에서 이러한 베르그송의 철학과 유사성을 가진 사조가 인상주의이다. 인상주의자들은 색을 ㉤ 혼합하는 방법을 즐겨 사용하였다. 그들은 서로 다른 색들을 합치는 대신 각각의 이질성을 살리면서 색들의 경계를 흐리게 표현하여 한 가지 색이 다른 하나의 색으로 감상자의 눈에 의해 분절됨이 없이 지속적으로 섞여 들어가도록 표현하였다. 또한 평면의 그림판에 그려진 그림이 3차원적 입체감을 갖도록 개발한 원근법과 같은 기법을 자제하고 색채를 중심으로 표현하였다. 더불어 인물화 속에 지성을 통해 ㉥ 포착된 인물의 위대함이나 교훈을 담으려 했던 고전주의와 달리 대상의 인상을 표현하려 한 것도 특징이다. 예를 들어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 식사」에는 등장인물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의미도 없다. 오로지 검은색과 흰색의 대비라는 색채의 미적 효과를 위해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와 ‘나체의 여자’를 그렸다. 고전주의에서는 풍경이 인간과 인간 행위의 배경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인상주의 회화에서는 인간도 독점적 지위 대신 배경의 일부로서의 의미만을 지니거나 아예 사라지기도 하였다. 심지어 대상에게 받은 인상에 집중시키기 위해 배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왜냐하면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중요한 것은 대상에게 받은 인상을 전달하는 것이었지, 그 대상이 인간인지 풍경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인상주의자들은 색들을 합쳐 만든 중간색은 편견이므로 이를 해체해 고유의 색으로 되돌린 후, 빛이 연출하는 색채의 아름다운 변화들을 연속적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로써 대상에 어떤 의미나 교훈을 담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인상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는 베르그송이 이야기한 근대 철학이 가져온 지성에 의한 분절로부터의 회복과, 이질적인 것의 연속 안에서 공감을 통한 통합으로 전체성을 느끼는 것과 ㉦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16.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이론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제시한 후, 이에 대한 절충점을 모색하고 있다.
- ② 특정 이론에 대한 비판을 제시한 후, 비판에 대한 재반론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 ③ 특정 이론의 견해가 지닌 부당함을 제시한 후, 이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시대 순으로 비교하고 있다.
- ④ 특정 이론의 견해를 제시한 후, 이를 반박하는 입장을 밝히고 그 입장과 연관된 다른 분야를 소개하고 있다.
- ⑤ 특정 이론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제시한 후, 자문자답의 방식을 통해 그 이론의 장단점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17.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근대 과학의 수학적 관점은 근대 철학의 이성론에 영향을 주었다.
- ② 케플러는 우주의 구성 원리에 대한 실험적 태도를 바탕으로 자연에 접근하였다.
- ③ 고대 과학은 근대 과학과 달리 사물이 변화하는 과정의 질적인 측면에 주목하였다.
- ④ 고전주의 회화에서 인간은 중요한 대상이었기에 풍경과 차별성을 가진 존재로 작품에 표현하였다.
- ⑤ 근대 철학에서는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것으로 개념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순 본성을 분절하였다.

18.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경험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다.
- ② ㉡은 공감과 통합의 경험을 통해 드러난다.
- ③ ㉠과 달리 ㉡은 순수한 이성을 통해 얻는다.
- ④ ㉠과 달리 ㉠은 단순 본성을 찾는 도구이다.
- ⑤ ㉠과 ㉡은 모두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이다.

19. 밑글을 참고하여 <보기>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날이 너무 더워 얼음을 넣은 물 한잔을 마시고 싶을 때, 내가 서둘러도 소용이 없다. 결국은 얼음이 물에 녹아 물이 시원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여기서 내가 기다리는 시간은 물질계에 적용되는 수학적 시간이지 아니라는 교훈을 얻는다. 그 시간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얼음이 녹는 데 걸리는 얼음만의 시간이며, 그 시간은 나의 경험된 시간의 어떤 부분과 합치되고 있다. 따라서 그것은 수치화된 시간이 아니라 나의 체험이 반영된 질적인 시간인 셈이다.

- ① 데카르트는 얼음이 녹는 현상을 교훈과 연결하며, 정지된 시간 속의 경험을 설명한 것이라 보겠군.
- ② 데카르트는 얼음이 녹는 시간에 대한 인식이 세계를 연속적인 전체로 파악하여 알게 된 것이라 보겠군.
- ③ 베르그송은 얼음이 녹는 시간을 인정하며, 공간의 영향을 받아 생긴 시간의 유의미성에 동의한 것이라 보겠군.
- ④ 베르그송은 얼음이 녹는 현상과 자신의 기다림을 통합하는 체험을 통해 질적인 시간의 의미를 드러낸 것이라 보겠군.
- ⑤ 베르그송은 얼음이 녹기를 기다리는 시간을 물질계와 차별화하며, 수(數)로 개념화된 시간 체험을 보여준 것이라 보겠군.

20.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 작품은 빛이 정면에서 대상을 비추지만 손과 발을 빼고는 그림자를 표현하지 않아 평면감이 나타난다. 또한 이 작품은 풍경이 없으며, 색이 입체감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만의 영역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검은색, 붉은색, 흰색과 같은 원색을 이용하여 각각의 색을 살리면서도 대상의 인상을 드러내는 인물화 안에 통합한 것이다.

「피리 부는 소년」(1866)  
- 에두아르 마네

- ① 풍경을 전혀 그리지 않은 것은 대상에서 받은 인상에서 집중시키기 위한 것이겠군.
- ② 최소한의 그림자만으로 작품을 표현한 것은 입체감을 위한 기법에 구애받지 않은 것이겠군.
- ③ 색들을 합친 중간색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각각의 색들이 갖는 특징을 그대로 표현하기 위한 것이겠군.
- ④ 색채의 미적 효과를 중심으로 표현한 것은 인물에 특정한 의미나 교훈을 담기 위한 흐름에서 벗어난 것이겠군.
- ⑤ 대상을 향해 정면으로 빛을 비추는 구도로 그린 것은 색들이 감상자의 눈에서 섞이지 않고 이질적으로 독립되도록 한 것이겠군.

21.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받아들이며                      ② ㉡: 넓히려
- ③ ㉢: 섞는                                ④ ㉣: 모아진
- ⑤ ㉤: 비슷한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나린 것을 나는 아모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버린다  
차디찬 밤이다

어니젠가 새끼 거미 끌려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  
나는 가슴이 짜릿한다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 밖으로 버리며  
찬 밖이라도 새끼 있는 데로 가라고 하며 서러워한다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싹기도 전이다  
어데서 좁쌀알만 한 알에서 가제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이번엔 큰 거미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린다  
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어 미나 분명히 울고불고 할 이 작은 것은 나를 무서우이 달어나 버리며 나를 서럽게 한다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 보드러운 종이에 받아 또 문 밖으로 버리며  
이것의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의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이 만나거나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슬퍼한다  
- 백석, 「수라(修羅)」 -

(나)

고향이 고향인 줄도 모르면서  
긴 장대 휘둘러 까치밥 따는  
서울 조카아이들이여  
그 까치밥 따지 말라  
**남도의 빈 겨울 하늘만** 남으면  
우리 마음 얼마나 허전할까  
살아온 이 세상 어느 물굽이  
소용돌이치고 휩쓸려 배 주릴 때도  
공중을 오가는 **날짐승에게 길을** 내어주는  
그것은 따뜻한 등불이었으니  
철없는 조카아이들이여  
그 까치밥 따지 말라  
사랑방 말쿠지에 짚신 몇 죽 걸어놓고  
할아버지는 무덤 속을 걸어가시지 않았느냐  
그 짚신 더러는 외로운 길손의 길보시가 되고  
한밤중 동네 개 킁킁 짖어 그 짚신 짚어지고  
아버지는 다시 새벽 두만강 국경을 넘기도 하였느니  
아이들아, 수많은 기다림의 세월  
그러니 서러워하지도 말아라  
눈 속에 익은 ㉡ 까치밥 몇 개  
겨울 하늘에 떠서  
아직도 너희들이 **가야 할 떠나면 길**  
이렇게 등 따습게 비춰주고 있지 않느냐.  
- 송수권, 「까치밥」 -

(다)

우리는 시를 감상하면서 시인이 시 속에 감추어 놓은 여러 장치들을 발견해 내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 여러 장치 중 하나인 시적 공간은 시인이 주제를 형상화하기 위해 설정한 곳으로 우리가 일상적 경험을 통해 지각하며 생활하게 되는 공간과는 성격이 다르다.

시적 공간은 시인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부터 구성된다. 시인은 이러한 시적 공간을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없는 공간으로 설정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간과는 다른 의미의 공간으로 설정하기도 하고, 동일한 공간도 한 편의 시에서 다른 의미를 담은 공간으로 설정하기도 한다.

또한 시적 공간은 시인이 살아온 삶과 가치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독자가 주체적으로 체득한 공간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다. 이처럼 시적 공간은 감상의 실마리가 되며 나아가 창조적 의미를 구성하는 요소로 기능하기도 한다.

22.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과의 이별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이 나타나 있다.
- ② 과거 회상을 통해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 ③ 계절적 배경을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자연에서 얻은 깨달음을 통해 화자의 태도가 변화하고 있다.
- ⑤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화자가 지향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다.

23.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은 모두 수고에 대한 보상을 나타낸다.
- ② ㉠, ㉡은 모두 다른 대상에 대한 배려를 나타낸다.
- ③ ㉠은 미물에 대한 용서를, ㉡은 미물에 대한 사랑을 나타낸다.
- ④ ㉠은 이상에 대한 동경을, ㉡은 현실에 대한 비판을 나타낸다.
- ⑤ ㉠은 인간과 자연의 합일을, ㉡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나타낸다.



24.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상을 의인화하여 화자의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축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이 놓인 비극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③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 ④ 화자의 태도가 달라짐에 따라 대상이 처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 ⑤ 1연 → 2연 → 3연에 따라 행의 수가 늘어나는 구조를 통해 정서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5. (다)를 바탕으로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시인은 (가)의 1연에서 ‘문 밖’을 일상적 경험을 통해 지각하는 공간과는 다른, 가족 공동체가 해체된 공간으로 설정했겠군.
- ② (가)의 3연의 ‘문 밖’은 1연의 ‘문 밖’과 동일한 공간이지만, 시인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 1연의 ‘문 밖’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 공간으로 설정했겠군.
- ③ 시인은 (나)의 ‘남도의 빈 겨울 하늘’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간과는 다른, 화자가 지키려는 가치관이 사라졌을 때를 가정한 공간으로 설정했겠군.
- ④ 독자는 (나)의 ‘날짐승에게 길을 내어주는’에서의 ‘길’을 일상에서 지각하는 ‘길’이 아닌, 시인의 고된 삶이 반영된 ‘길’로 이해할 수 있겠군.
- ⑤ 독자는 (나)의 ‘가야 할 떠나면 길’에서의 ‘길’을 일상에서 지각하며 생활하는 공간으로서의 ‘길’이 아닌, 주체적으로 체득한 ‘길’로 이해할 수 있겠군.

[26~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적멸사(寂滅寺)에는 청허(淸虛)라 하는 한 이름 높은 선사가 살고 있었다. 그는 천성이 어질었고 마음 또한 착했다. 추운 사람을 만나면 입었던 옷을 벗어 주었다. 배고픈 사람을 보면 먹던 밥도 몽땅 주어 버렸다. 이래서 사람들이 그를 일러, ‘추운 겨울의 봄바람’이라거나 ‘어두운 밤의 태양’이라거나 하고 우러러 받들었다.

[A] 그런데 국운은 나날이 쇠퇴하였고, 호적(胡狄)이 침입하여 팔도강산을 짓밟았다. 상감은 난을 피하여 고성에 갇혔고, 불쌍한 백성들은 태반이 적의 칼에 원혼(冤魂)이 되었다. 이런 와중에서도 저 강도(江都)의 참상은 더욱 처절했다. 시신의 피는 냇물처럼 흘렀고, 백골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까마귀가 사정없이 달려들어 시신을 파먹었으나 장사 지낼 사람이 없었다. 오직 청허 선사만이 이를 슬프게 여겼다.

선사는 몸소 시신을 거두어 묻어 주려고 했다. 그는 손으로 버들가지를 잡아 도술을 부렸다. 넓은 강물을 날아 건넜다. 강 건너 인가가 황폐하여 어디 몸을 의탁할 곳이 없었다. 이에 선사는 연미정(燕尾亭) 남쪽 기슭에다 풀을 베어 움막을 엮었다. 그는 움막에서 침식하며 법사(法事)를 베풀었다.

어느 날이었다. 달이 휘영청 밝았다. 그는 어렴풋이 한 꿈을 꾸었다. 티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은 물빛같이 푸르렀고, 음산한 밤공기가 주위를 휩쌌다. 이따금 찬바람이 엄습했고, 처량한 밤기운이 감돌아 심상치 않았다. 청허 선사[ B ]는 손에 석장(錫杖)을 쥐고 달밤을 소요(逍遙)하고 있었다. 밤중이 되어 바람에 소리가 들려오는데, 노랫소리 같기도 하고, 울음소리 같기도 했다. 그 노래와 웃음소리, 울음소리는 다 부녀들의 것으로서 한곳에서 들려왔다. 선사는 매우 이상히 여기고 가만가만 다가가 엿보았다. 그곳에 수많은 부녀자들이 열을 지어 앉아 있었다.

어떤 사람은 얼굴이 주글주글했고 백발이 성성했다. 또 젊은 여인도 있었는데 삼단 같은 머리를 하고 황홀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그들은 한데 있었는데, 비통하기 이를 데가 없었다. 청허 선사는 더욱 이상하게 생각했다. 좀 더 나아가 자세히 살펴보았다. 어떤 사람은 두어 발이 넘는 노끈으로 머리를 묶기도 했고, 또 다른 이는 한 자가 넘는 시퍼런 칼날이, 시뻘건 선지피가 엉긴 채 뼈에 박혀 있었다. 또 머리통이 박살났는가 하면, 물을 잔뜩 들이켜 배가 불룩한 사람도 숭했다. 이 끔찍스러운 참상은 두 눈 뜨고는 차마 볼 수 없었고, 날카로운 붓으로도 낱알이 기록할 수 없는 생지옥이었다.

㉠ 한 여자가 울먹거리며 말했다.

“종묘사직(宗廟社稷)이 전란을 입어 그 참상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슬프외다. 하늘이 무심탄 말인가요. 아니면 요괴의 장난인가요. 구태여 그 이유를 다 따지고 든다면 바로 우리 낭군의 죄이겠지요. 태보(台輔)의 높은 지위며 체부(體副)의 중책을 진 사람이 공론(公論)을 무시한 소치입니다.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편벽되게도 강도의 중책을 제 자식에게 맡겼지요. 자식 놈은 중책을 잇고 밤낮 술과 계집 속에 파묻혀 마음껏 향락에 빠졌습니다. 장차 닥쳐올 외적의 침입을 까맣게 잊어 버렸으니 어찌 군무(軍務)에 힘쓸 일을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깊은 강, 높은 성, 험한 요새를 갖고도 이처럼 대사를 그르쳤으니, 죽어 마땅

하지요. 슬프외다. 이 내 죽음이여! 나는 몇몇이 자결했다고 자부합니다. 다만 제 자식 놈이 살아 나라를 구하지 못했고 죽어 또한 큰 죄를 지었으니, 하늘에 더러워진 이름을 어떻게 다 씻어 버리겠어요. 쌓이고 쌓인 원한이 가슴 속속들이 박혀 한때라도 잊을 날이 없군요.”

(중략)

모든 부인들이 제각기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깊이 탄식하기도 했고, 눈물을 줄줄 흘리기도 했으며, 대성통곡하기도 했다. 글로는 그것을 다 표현할 수 없었다. 조금 시간이 흘렀다. 다음 여자가 일어나 사람 속을 왔다 갔다 했다. 그녀는 두 눈동자가 셋별같이 유난히 빛나고 초승달 같은 눈썹이며 삼단 같은 머리는 가히 선녀라 할만했다. 선사는 매우 이상히 여기며 속으로 생각했다.

[C] ‘직녀가 은하에서 내려왔나, 월궁에서 항아가 내려왔나, 만일 직녀라 한다면 견우 낭군을 이별한 뒤에 만나지 못했으니 당연히 슬픔에 싸여 눈물을 흘릴 것이다. 또한 월궁의 항아라면 긴긴 밤 독수공방에서 애타케 그리워한다고 흥안은 늙어 가고 백발이 성성할 터인데, 도무지 이 여자는 복사꽃 아롱진 뺨에 근심 어린 빛이 전혀 없으니 알지 못할 일이다. 이 또한 괴이한 일이구나.’

이때 ㉠ 그 여자가 방긋 웃으며 말했다.

“침은 기생이라. 노래와 춤이 널리 이름났습니다. 못 사내들과 어울려 인생 환락이 극도에 달했습니다.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니 사람에게 귀한 것이 정절입니다. 그래서 하루 아침에 마음을 가다듬고, 깊은 규중에 틀어박혀 오래도록 한 남편을 섬겨 다시는 두 마음을 먹지 않으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난리가 일어나 꽃 같은 청춘이 그만 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오늘 밤 이 높은 회합에 제가 낄다는 것은 너무나 과분합니다. 외람되게도 승렬하신 여러분들의 곁에 끼어 다행히도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절의의 높으심과 정렬(貞烈)의 아름다움은 하늘도 감동하고 사람마다 탄복하지 않을 사람이 없겠습니다. 몸은 비록 죽었지만 죽은 것은 아닙니다. 강도가 함락되고 남한성(南漢城)이 위태로워 상감마마의 욕되심과 국치(國恥)가 임박하였지만 충신절사(忠臣節士)는 만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부녀자들만의 정절이 넘쳐났으니, 이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죽음이옵니다. 그런데 왜 그리 서러워하십니까?”

이 말이 끝나자마자, 좌중의 여러 부인들이 일시에 통곡했다. 그 통곡 소리는 참담하기 그지없었고 차마 들을 수 없었다. 선사는 혹시나 부인들이 알아차릴까 두려워 숲속에 숨어서 몸 둘 바를 모르고 있었다. 그러다 날이 밝아지기를 기다려 물러나오다 별안간 놀라 깨어 보니 한바탕의 꿈이었다.

— 작자 미상, 「강도몽유록(江都夢遊錄)」—

26. [A]~[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요약적 진술을 통해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 ② [A]: 인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인물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부연하고 있다.
- ③ [B]: 다양한 심상을 사용하여 사건의 시간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 ④ [C]: 전기적 요소를 활용하여 인물의 영웅적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 ⑤ [C]: 고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과 작중 인물을 비교하여 해당 인물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

27.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상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질문을 하고 있다.
- ② ㉠과 ㉡은 모두 과거의 사건을 근거로 현재의 상황에 처한 이유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과 ㉡은 모두 자신의 처지를 강조하며 상대방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 ④ ㉠에는 인물에 대한 분노가, ㉡에는 인물에 대한 시기가 내재되어 있다.
- ⑤ ㉠은 현실적 가치를 내세워, ㉡은 이상적 가치를 내세워 자신의 결정을 상대방이 따르도록 유도하고 있다.

28.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강도몽유록」은 꿈속의 사건이라는 문학적 장치를 통해 전란의 책임이 무능한 위정자들에게 있다는 작가의 비판적 현실인식을 드러낸 작품이다. 몽유자는 강화도가 함락될 때 죽어간 혼령들의 규탄과 통곡을 통해 병자호란의 참상을 전달한다. 특히, 여인의 입을 통해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에 대한 기억을 재구성함으로써 사건의 감추어진 진상을 밝힌다.

- ① ‘청허’는 입몽 전에는 사건의 주체이지만 입몽 후에는 보고 들은 사건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군.
- ② ‘청허’의 꿈을 통해 죽은 혼령들의 끔찍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병자호란의 참상을 알리고 있군.
- ③ ‘한 여자’는 남편과 자식의 잘못을 지적하며 강화도가 쉽게 함락될 수밖에 없었던 감추어진 진상을 밝히고 있군.
- ④ ‘기생’은 나라가 위기에 빠졌는데도 나서는 충신이 없다고 한탄하면서 위정자들의 무능을 비판하고 있군.
- ⑤ ‘여러 부인들’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억을 재구성함으로써 전란의 참상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군.

[29~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가 섭취한 영양소로부터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거나 몸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는 과정은 모두 화학 반응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화학 반응의 속도를 변화시키는 물질이 촉매이다. 촉매는 정촉매와 부촉매로 구분되는데, 활성화 에너지와 반응 속도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활성화 에너지란 어떤 물질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이다.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면 반응 속도가 빨라지고, 활성화 에너지가 높아지면 반응 속도가 느려지게 된다. 이러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것이 정촉매이고, 활성화 에너지를 높이는 것이 부촉매이다.

우리 몸속에도 이러한 촉매가 존재하는데, 효소가 그러하다. 대부분의 효소는 생체 내에서 화학 반응을 빠르고 쉽게 일어나게 한다. 예를 들어 소화 효소인 펩신이 분비되어 우리는 음식물을 오랫동안 위장에 담고 있지 않고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효소를 구성하는 주성분은 단백질이며 각 효소는 고유의 입체 구조를 갖는다. 효소는 촉매로 작용하는 과정에서 반응물과 일시적으로 결합한다. 효소에서 반응물과 결합하여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특정 부분을 활성 부위라고 하며, 활성 부위와 결합하는 반응물을 기질이라고 한다. 효소에 의한 촉매 과정에서 효소의 활성 부위와 기질의 3차원적 입체 구조가 맞으면 효소·기질 복합체가 일시적으로 형성되는데, 이처럼 한 종류의 효소가 한 종류의 기질에만 작용하는 것을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라 한다. 촉매 과정이 끝나면 기질은 생성물로 바뀌며, 효소·기질 복합체로부터 분리된 효소는 처음과 동일한 화학적 상태로 복귀하여 다음 반응을 준비한다.

그런데 어떤 화학 물질은 효소와 결합하여 효소의 작용을 방해하는데, 이러한 물질을 저해제라고 한다. 저해제는 효소 반응을 방해하는 방식에 따라 ㉠ 경쟁적 저해제와 ㉡ 비경쟁적 저해제로 나뉘어진다. 먼저 경쟁적 저해제는 기질과 유사한 3차원적 입체 구조를 지니고 있어, 기질이 결합할 효소의 활성 부위에 기질 대신에 경쟁적 저해제가 결합하여 효소·기질 복합체의 형성을 저해한다. 경쟁적 저해제는 기질의 농도가 증가하면 저해 효과는 감소한다. 다음으로 비경쟁적 저해제는 효소의 활성 부위가 아닌 효소의 다른 부위에 결합하여 효소의 입체 구조를 변형시킴으로써 효소의 활성 부위에 기질이 결합하지 못하게 한다. 그 결과 효소·기질 복합체가 형성되지 않아 효소의 작용을 저해한다. 비경쟁적 저해제가 작용하는 경우에는 기질의 농도가 증가해도 저해 효과는 감소하지 않는다.

29.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촉매의 개념과 종류
  - 활성화 에너지와 반응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 ② 생체 내 효소의 촉매 반응
  - 효소의 작용과 저해제의 기능을 중심으로
- ③ 촉매와 효소의 화학적 정의
  - 반응 전후의 상태 및 기질 특이성을 중심으로
- ④ 효소가 관여하는 화학 반응의 속도
  - 주변 온도와 기질의 농도가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⑤ 효소가 우리 몸속에서 하는 여러 가지 역할
  - 정촉매와 부촉매의 특성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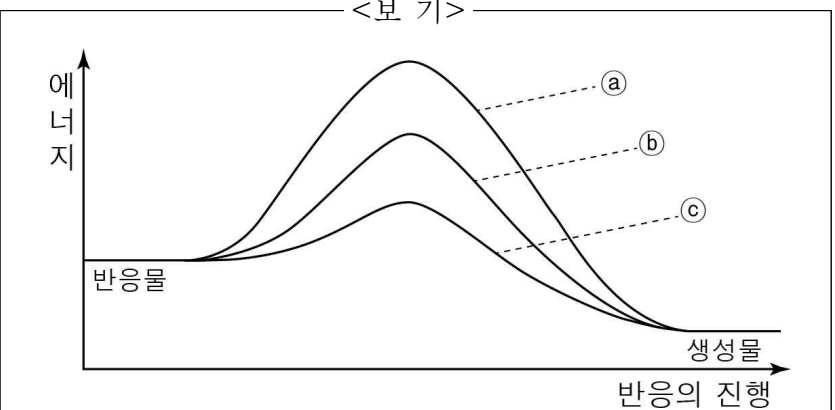
30.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효소는 생체 내의 화학 반응에서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 ② 촉매는 몸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는 화학 반응에서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
- ③ 기질의 구조와 효소의 활성 부위의 구조가 다르면 효소 촉매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
- ④ 촉매 과정에서 반응물과 일시적으로 결합하는 효소는 고유의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
- ⑤ 효소·기질 복합체에서 분리된 효소는 다른 종류의 기질에 맞는 입체 구조로 변형되어 다음 반응을 준비한다.

31.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 달리 ㉡은 효소의 입체 구조를 변형시키는 역할을 한다.
- ② ㉡과 달리 ㉠은 효소·기질 복합체의 형성을 방해한다.
- ③ ㉠과 ㉡은 모두 기질과 유사한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
- ④ ㉠과 ㉡은 모두 효소의 활성 부위가 아닌 곳에 결합한다.
- ⑤ ㉠과 ㉡은 모두 기질의 농도 증가가 저해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32. 다음은 촉매 반응을 설명하기 위한 그래프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① ㉠을 촉매가 없는 그래프라고 가정할 때, ㉡은 반응물에 부촉매를 넣은 그래프이겠군.
- ② ㉢을 촉매가 없는 그래프라고 가정할 때, ㉠은 반응물에 정촉매를 넣은 그래프이겠군.
- ③ 생성물을 만들어내는 화학 반응 속도는 ㉢이 ㉡보다 빠르겠군.
- ④ ㉠, ㉡, ㉢에서 반응에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는 동일하겠군.
- ⑤ ㉠, ㉡, ㉢에서 동일한 양의 생성물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모두 동일하겠군.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나’는 너무네 아저씨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 전쟁 때 자식 대신 성표를 데리고 피난했던 너무네 아저씨를 떠올린다.

밤새도록 반짝반짝 닦은 크고 작은 자물쇠를 앞뒤로 주렁주렁 달고 장군처럼 거만하고 당당하게 장사를 나가는 너무네 아저씨의 권위는 완벽했다. 내 자식을 사지에 뿌리치고 조카자식을 구해 내서 공부시킨다는 게 그렇게 위대한 일일까? 나는 그의 당당함에 압도된 채, 속으론 ‘언제고 그의 위대성이 터무니없는 가짜라는 걸 보고 말 테다’라는 엉큼한 생각을 키우고 있었다.

휴전이 되었지만 우리 고향에 돌아갈 수 없었다. 38 이남이었기 때문에 꼭 돌아갈 수 있으리라 믿었던 우리는 하필 우리 고향 쪽에서 남으로 처진 휴전선이 억울하고 원망스러웠다.

너무네 아저씨인들 그때 이별이 영이별 될 줄만 알았으면 설마 지계에 은표 대신 성표를 올려놓지는 않았으련만……. 형과 나는 고향을 아주 잃은 비감 때문에 이렇게 너무네 아저씨의 처사를 인간적으로 해석하려 들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너무네 아저씨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될 줄 미리 알고 장조카를 구했노라고 으스했다. 장조카를 공부시킬 위대한 사명을 띤 그의 행상이 조그만 점포로 발전할 무렵 우리도 생활이 좀 나아져서 판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됐다. 그러나 자주 소식을 주고받았고, 만날 기회도 심심찮게 있었다.

1년에 두 번 있는 동향인의 군민회도 우리 식구가 모두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참석하는 즐거운 모임이었지만 너무네 아저씨네도 꼭 숙질이 함께 참석했다. 또 신향민끼리의 의리라는 것도 각별해서 고향 땅에선 서로 모르고 지냈던 사이끼리도 경조사를 서로 연락하고 적극 참석했다.

결혼식장 같은 데서 가끔 만나는 너무네 아저씨는 성표를 대동할 적도 있었고 혼자일 적도 있었다. 물론 앞뒤에 자물쇠를 주렁주렁 달고 다니던 왕년의 행상 티는 조금도 나지 않았다. 그러나 내 눈엔 언제나 그가 [자물쇠]를 훈장처럼 달고 다니는 것처럼 보였다.

제 자식을 모질게 뿌리치고 장조카를 데리고 나와 성공시키기 위해 온갖 고생 다 했다는 걸로 자신을 빚내려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가 자물쇠 행상일 적에 매일 밤 그것을 닦아 훈장처럼 빛냈듯이, 요새도 매일 밤 자신의 내력을 번쩍 번쩍 빛나게 닦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 특이한 내력으로 어디서나 빛났다. 동향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나잇살이나 먹은 이들은 그의 자량을 끝까지 들어 주고 아낌없이 그를 칭송하고 존경하는 걸로 자신의 도덕적인 결함까지 은폐하려 드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은표 어머니의 ㉠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잊지 못하는 한 그의 위대성이 가짜라는 게 드러나 그가 웃음거리가 되는 걸 보고야 말겠다는 생각을 단념할 수 없었다.

동향인의 결혼식도 잦았지만 장례식도 잦아졌다. 동향인이 모이는 자리에도 세대교체 현상이 나타나 나잇살이나 먹은 이들이 점점 줄었다. 너무네 아저씨의 자량을 들어 주고 칭송할 사람도 그만큼 줄었다. 자신의 내력이 더 이상 자신을

빛내 줄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너무네 아저씨는 눈에 띄게 풀이 죽어 갔다. 나는 그런 허점을 놓칠세라 젊은 사람들한테 그가 한 짓을 풍겼다. 젊은이들의 반응은 노인들의 반응과 판이했다. 우린 이미 너무네 아저씨가 신봉하던 케케묵은 도덕과 상관없는 세대였다. 그건 한낱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았다. 그게 웃음거리라면 너무네 아저씨는 더 큰 웃음거리였다. 좀 더 생각이 깊은 젊은이라면 너무네 아저씨가 자기 처 자식에게 저지른 비인간적인 처사에 분개해 마지않았고, 그를 숫제 징그러운 괴물 취급하려 들었다.

(중략)

“에구머니, 이제 죽을 날이 정말 가까웠나 봐. 곡기 끊으면 죽는다는데…….”

아주머니가 경망스럽게 순갈을 내던지며 놀랐다. 그러나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다는 확신을 얻고, 그의 경련 치는 손을 잡고 애타게 외쳤다.

“아저씨, 너무네 아저씨, 저를 알아보시겠어요? 네, 너무네 아저씨, 뭐라고 말씀 좀 해 보세요.”

이윽고 아저씨의 손에 힘이 쥐어지는 듯하더니 입놀림이 확실해졌다. 나는 그의 멍청하던 눈에 그윽한 환희가 어리는 걸 푹푹히 보았고 그의 ㉡ 일이 말하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은표야, 아아, 은표야.”

아저씨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아저씨가 그의 아들을 뿌리치고 대신 조카를 데리고 피난 내려온 뒤 한 번도 아들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걸 들은 적이 없었다. 은표의 단짝이었던 나를 보면 은표도 어느 하늘 밑에 죽지 않고 살았으면 저만할 텐데 하고 비감하는 눈치라도 보일 법한데 그런 적조차 없었다. 그는 아들을 뿌리침과 동시에 아들의 이름까지 잊어버렸을 뿐더러 아예 기억에서 지우고 사는 사람 같았다. 아들 대신 장조카 데리고 피난 나왔다고 자랑할 때의 아들도 보통 명사로서의 아들이지 은표라는 고유 명사로서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가 처음으로 입에 올린 은표 소리는 나만 겨우 알아들을 만큼 희미했다. 그러나 내 귀엔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로 들렸다. 그는 사력을 다해 ㉢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아아, 30여 년 전 은표 어머니의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는 이제야 양값음을 완수한 것이다.

나는 그렇게 되길 오랫동안 바라고 기다려 왔을 터인데도 쾌감보다는 허망감에 소스라쳤다.

다시 열쇠고리 장수가 늘어선 거리로 나왔을 땐 해가 뉘엿뉘엿했다. 해가 뉘엿뉘엿할 무렵이면 가슴에 하나 가득 갖가지 자물쇠를 늘인 채 봉지쌀과 자반고등어를 사들고 뒤통뒤통 걸어오던 너무네 아저씨의 모습이 떠올랐다. 봉지쌀과 자반고등어 때문인지 자물쇠가 훈장으로 보이는 엉뚱한 착각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외롭고 초라한 자물쇠 장수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를 직시할 수 있기까지 자그마치 서른두 해가 걸렸던 것이다.

— 박완서, 「아저씨의 훈장」 —

33.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인물의 행동과 심리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 ② 공간적 배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시대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③ 작중 인물인 서술자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인물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다.
- ④ 장면을 빈번하게 교차하여 인물이 처한 상황의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34. [자물쇠]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너우네 아저씨’에 대한 ‘나’의 인식을 드러낸다.
- ② ‘나’와 ‘너우네 아저씨’의 심리 변화를 유발한다.
- ③ ‘나’와 ‘너우네 아저씨’의 삶의 성찰을 이끌어낸다.
- ④ ‘나’와 ‘너우네 아저씨’가 갈등하는 이유를 드러낸다.
- ⑤ ‘너우네 아저씨’에 대한 ‘나’의 이중적 태도를 보여준다.

35.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로 인한 인물 간의 오해가 ㉢로 인해 심화되고 있다.
- ② ㉠을 통한 인물에 대한 판단을 ㉣로 인해 보류하고 있다.
- ③ ㉠을 통해 ㉣를 공감하게 되면서 인물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 ④ ㉢를 통해 ㉠을 회상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고 있다.
- ⑤ ㉢를 ㉣로 인식하면서 상대에 대한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진다.

36.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아저씨의 훈장」은 가부장적 세계관과 사회적 평가에 사로잡혀 속박된 삶을 산 인물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작품 속 인물은 자신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 믿음을 실천하며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고자 한다. 하지만 시대 흐름에 따라 세대가 교체되면서 사회적 평가가 달라지는 양상을 보인다. 아울러 작가는 인물들의 삶을 바탕으로 한국 전쟁으로 인한 분단의 문제까지 함께 조명하고 있다.

- ① ‘형’과 ‘나’가 고향을 잃은 비감을 느끼는 모습에서 한국 전쟁으로 인한 분단의 슬픔을 엿볼 수 있군.
- ② ‘너우네 아저씨’를 비웃는 ‘젊은이들’의 모습에서 기존 세대에서 인정받던 믿음이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나’는 풀이 죽어가는 ‘너우네 아저씨’의 모습을 시대에 따라 달라진 사회적 평가를 지각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군.
- ④ ‘너우네 아저씨’를 칭송하는 ‘노인들’의 모습에서 가부장적 세계관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나’는 ‘너우네 아저씨’가 장조카를 통해 자신을 빛내려 하는 모습을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모습으로 보고 있군.

[37~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가는 자국의 힘이 외부의 군사적 위협을 견제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판단할 때나, 역사와 전통 등의 가치가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는다. 동맹결성의 핵심적인 이유는 동맹을 통해서 확보되는 이익이며 이는 동맹관계 유지의 근간이 된다.

동맹의 종류는 그 형태에 따라 방위조약, 중립조약, 협상으로 ㉠ 나눌 수 있다. 먼저 방위조약은 조약에 서명한 국가들 중 어느 한 국가가 침략을 당했을 경우, 다른 모든 서명국들이 공동방어를 위해서 참전하기를 약속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립조약은 서명국들 중 한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침략을 받더라도, 서명국들 간에 전쟁을 선포하지 않고 중립을 지킬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협상은 서명국들 중 한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했을 경우, 서명국들 간에 공조체제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차후에 협의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세 가지 유형 중 방위조약의 경우는 동맹국의 전쟁에 개입해야 한다는 강제성이 있기에 동맹국 간의 정치·외교적 관계의 정도가 매우 가깝다. 또한 조약의 강제성으로 인해 전쟁 발발 시 동맹관계 속에서 국가가 펼칠 수 있는 정치·외교적 자율성은 매우 낮다. 즉 방위조약이 동맹국 간의 자율성이 가장 ㉡ 낮고, 다음으로 중립조약, 협상순으로 자율성이 높아진다. 한 연구에 따르면, 1816년부터 1965년까지 약 150년 간 맺어진 148개의 군사동맹 중에서 73개는 방위조약, 39개는 중립조약, 36개는 협상의 형태인데, 평균 수명은 방위조약이 115개월, 중립조약이 94개월, 협상은 68개월 정도였다. 따라서 ㉢

위와 같이 동맹관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에 대해 ㉣ 현실주의자들과 ㉤ 구성주의자들은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는데, 이는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우선 현실주의자들은 국가는 이기적 존재이며 국제 사회의 유일하고 중요한 행위 주체라고 생각한다. 국제 사회는 국가 이상의 단위에서 작동하는 중앙정부와 같은 존재가 부재하는 일종의 무정부 상태이므로 개별 국가는 힘의 논리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각 나라는 군사적 동맹을 통해 세력 균형을 ㉥ 이루어 패권 안정을 취하려 한다. 특정한 패권 국가가 출현하면 그 힘을 견제하기 위한 국가들 간의 동맹이 형성되기도 하고, 그 힘에 편승하는 동맹이 형성되기도 한다. 이렇듯 힘의 균형점이 이동함에 따라 세력의 균형을 끊임없이 ㉦ 찾는 과정에서 동맹관계는 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구성주의자들 역시 현실주의자들처럼 동맹관계가 고정된 약속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약속이라고 본다. 구성주의자들은 무정부적 국제 사회를 힘의 분배와 균형 등의 요소로 분석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관계에 주목한다. 구성주의자들은 국제 사회의 구성원들이 상호 작용을 하여 상호 간 역할과 가치를 형성하면서 국제 사회 환경의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본다. 상호 작용의 변화에 따라 동맹은 달라질 수 있는데, 타국이나 국제 사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고 국제 사회에서의 구성원들의 역할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긍정적인 동맹관계를 ㉧ 맺고 평화로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동맹은 파기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37.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가는 동맹에 참여하여 자국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
- ② 협상은 전쟁 발발 이후의 공조체제 유지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지 않는다.
- ③ 패권 국가가 출현하기 위해서는 그 힘에 편승한 세력들의 동맹이 필요하다.
- ④ 동맹은 국가가 전쟁 등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맺는 국가 간의 약속이다.
- ⑤ 중립조약은 서명국이 속한 전쟁에 참가하지 않을 것을 합의하는 동맹이다.

38.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동맹관계가 멀고 자율성이 높을수록 그 수명이 연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② 동맹관계가 멀고 자율성이 낮을수록 그 수명이 단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동맹관계가 가깝고 자율성이 높을수록 그 수명이 연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동맹관계가 가깝고 자율성이 낮을수록 그 수명이 단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동맹관계가 가깝고 자율성이 낮을수록 그 수명이 연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3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국제 사회의 문제를 ㉣은 힘의 관계에, ㉤은 상호 인식 관계에 주목하여 설명하였다.
- ② 국제 사회 혼란의 원인을 ㉣은 국가적 이기심, ㉤은 세력의 불균형 때문이라고 보았다.
- ③ 국제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은 상호 협력이, ㉤은 상호 견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 ④ 동맹이 변화하는 이유를 ㉣은 패권 국가의 출현으로 인한 전쟁으로, ㉤은 구성원의 자국에 대한 인식의 부재로 보았다.
- ⑤ 국제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은 중앙정부와 같은 존재가, ㉤은 구성원 간의 고른 역할 분배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4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A국은 B국과 방위조약을 맺고 동맹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런데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A국은 B국과의 동맹을 파기하고 C국과 중립조약을 새로 체결했다. 그런데 A국의 여론은 이러한 변화에 반대한다.

- ① A국이 B국과 동맹을 파기하기 전에는, A국은 B국의 전쟁에 참전해야 할 의무가 있었겠군.
- ② A국이 C국과 동맹을 맺은 후에는, B국과 C국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A국은 참전하지 않아야 하겠군.
- ③ 현실주의자들은 A국과 B국의 동맹이 파기된 이유를, B국에 대한 A국 구성원들의 신뢰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겠군.
- ④ 구성주의자들은 A국 구성원들이 C국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된다면, C국과의 동맹관계는 유지되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하겠군.
- ⑤ 구성주의자들은 A국에서 변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된 이유를, C국보다 B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겠군.

41. ㉠~㉣의 문맥적 의미를 활용하여 만든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 ① ㉠: 이 글은 세 개의 문단으로 나눌 수 있다.
- ② ㉡: 그녀의 목소리는 매우 낮고 단호했다.
- ③ ㉢: 그는 친구들과 동아리를 이루어 발표 대회에 나갔다.
- ④ ㉣: 감기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부쩍 늘었다.
- ⑤ ㉤: 나는 그와 오래전부터 친분을 맺고 있다.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가을밤 아주 긴 때 적막한 방 안에  
어둑한 그림자 말 없는 벗이 되어  
외로운 등 심지를 태우고 전전반측(輾轉反側)하여  
밤중에 어느 잠이 ㉠ 빛소리에 깨어나니  
구곡간장(九曲肝腸)을 끓는 듯 켜는 듯 새도록 끓인다  
하물며 맑은 바람 밝은 달 삼경(三更)이 깊어 갈 때  
동창(東窓)을 더디 닫고 외로이 앉았으니  
임의 얼굴에 비친 달이 한 빛으로 밝았으니  
반기는 진정(眞情)은 임을 본 듯하다마는  
임도 달을 보고 나를 본 듯 반기는가  
저 달을 높이 불러 물어나 보고 싶은데  
구만리장천(九萬里長天)의 어느 달이 대답하리  
묻지도 못하니 눈물질 뿐이로다  
어디 뉘 말이 춘풍추월(春風秋月)을 흥(興) 많다 하던가  
어찌한 내 눈에는 다 슬퍼 보이는구나  
봄이라 이러하고 가을이라 그러하니  
옛 근심과 새 한(恨)이 첩첩이 쌓였구나  
세월이 아무리 흐른들 이내 한이 그칠까  
몇 백세(百歲) 인생이 천년의 근심을 품어 있어  
못 보는 저 임을 이토록 그리는가  
잠깐 동안 아주 잊어 후리쳐 던져두자  
운수에 정해진 만남과 이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언약을 굳게 믿고 기다려는 보자구나  
행복과 불행은 하늘의 이치에 자연 그러하니  
초생(初生)에 이지러진 달도 보름에 둥글듯이  
청춘에 나눈 거울 이제 아니 모을소냐  
신혼에 즐거웠거늘 오랜 옛정이 지금이라고 어떠하랴  
흰머리 속의 소년의 마음을 가져 있어  
산수(山水) 갇춘 고을에 초막(草幕)을 작게 짓고  
편안치 못한 생애를 유여(有餘)하고자 바랄소냐  
두세 이랑 돌밭을 갈거나 짓거니  
오곡이 익거든 조상 제사 받들고 성경(誠敬)을 이룬 후에  
있으면 밥이오 없으면 죽을 먹고  
좋은 일 못 보아도 궂은 일 없을지니  
오십에 아들 낳아 자손 아기 늙도록  
일생에 덜 밟던 정을 밟도록 좇으리라  
— 박인로, 「상사곡(相思曲)」 —

(나)  
내 나이 대여섯 살 적에 나는 동리 사람들이 ‘금융조합 이사 집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 집의 대명사가 ‘금융조합 집’인 것도 귀담아 듣게 되었다. 때문에 송천, 사리원, 겸이포, 장연 등지로 번질나게 이사를 다녔다고 한다. 이사(理事)네 집이기 때문에 이사(移徙)만 다닌다고, 나는 그때 혼자서 그렇게 생각했었다. 그래서 ㉠ 도라지꽃, 하늘 색깔 닮아 고웁던 그 구월산 줄기 남쪽엘 거의 안 다닌 곳 없이 다닌 것이었다.

요즈음도 그 ㉡ 몽금포 타령, 라디오에서 흐르는 그 가락은, 가끔 날 눈 감게 하여 주고, 그러고는 나의 고향을 그 가락에 매어 끌어다 준다. 마치 수평선 저쪽에서 다가오는 한



척의 뭇배처럼 느끼고 잔잔하게.

감나무 두 그루가 엇갈려 서 있는 송천의 금융조합 이사 집이, 내 감은 두 눈 속에서 암전히 찾아와 스며든다. 그것은 빛바랜, 옛날의 사진처럼 부우연 원색화이다.

뽕나무밭이 줄 그어 가시울타리까지 달려간 뒷밭에서, 오디 철 한여름을 보내면, 감나무의 감이 어린 나를 어른스러워 갔다.

오뎃물 들어, 입술이 너나없이 연둣빛이 되던 그 한 철이 지나, ㉠ 뽕잎에 기름진 여름이 줄줄 녹아 흐르고 나면 그 다음엔 뽕은 입속의 감 맛을 느끼게 된다. 그 뽕은 감겨를 소매에 부빈다고 야단을 맞던 ㉡ 어린 시절이 나의 눈앞에서 희죽희죽 웃는다. 내가 순수 무구하게 웃음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이런 혼자만의 회상 속에서 가능한 것 같다.

처음 담근 감의 뽕음이 빠지기를 기다리다 못해, 가을이 먼저 오는 곳이 그곳이었다. 개암 익기 기다려 산을 파헤치고 다닌다. 또 ㉢ 두 산이 기억 자처럼 붙어 버린 산그늘, 그 속의 바위 냇물로 빨래하러 가는 아낙들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따라다니던 생각..... 사라지지 않는 방망이 소리. 또 먼지 피우며 달아나는 한두어 대의 목탄차가 신작로로 빠져나가는 것 바라보고 가슴 설레던 생각도, 시금털털한 머루 따 먹느라고 썰기에 쏘이던 생각도, 지금은 애써 다 그려 보고 싶은 풍경들이다.

(중략)

고향은 지워지지 않고, 잊어버릴 뿐. 그러나 아직 잊어버리지 않으나, 잃어버리는 생각은 있다. 쪼그만 옛날의 장난감을 잃어버리듯이.

비 온 뒤, 광에서 채를 훑쳐 내다가 달치 새끼나 건져 나누며, 싸우던 냇가의 생각, 또 포플러 높은 키의 그림자가 물속에 드리울 때, 잔등에 뽕이 솟은 쏘가리가 그 그늘로 기어 들고 모래 속에 주둥이만 콧 파묻는 모래무지가 무지무지하게 많던 강가.

그놈들 잡아서 한 마리도 국 끓여 먹어 보질 못했건만, 무엇 때문에 잡으려고 고무신만 떠내려 보내고 울곤 하였던가.

㉣ 수수깡 뽕아 마디마디 끝마다 씹어 빨아 먹고, 안경만 들어 쓰고 ‘에헴!’ 우편소의 문을 밀고 들어서 보던 시절로 지금도 달려가는 나의 생각들, 그것이 몰려가선, 나의 고향을 이룬다.

- 유경환, 「고향 이루는 생각들」 -

42.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리운 대상을 떠올리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다.
- ② 해결하기 어려운 내면적 고통을 토로하며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 ③ 차분하게 주변을 돌아보며 주변의 모습에서 깨달음을 얻고 있다.
- ④ 어지러운 세속을 부정하며 세속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변해 버린 현실에 대해 아쉬워하며 현실에 대해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3.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의 상상 속에, ㉡은 작가의 현실 속에 있는 소재이다.
- ② ㉠은 화자가 함께하고 싶어 하는, ㉡은 작가가 멀리 하고 싶어 하는 소재이다.
- ③ ㉠은 화자의 처지가 긍정적임을, ㉡은 작가의 처지가 부정적임을 알게 하는 소재이다.
- ④ ㉠은 화자의 현재의 정서를 심화시키고, ㉡은 작가의 과거의 정서를 떠올리게 하는 소재이다.
- ⑤ ㉠은 화자의 내적 갈등이 고조됨을, ㉡은 작가의 외적 갈등이 해소됨을 알게 하는 소재이다.

44.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박인로의 「상사곡」은 이별한 임에 대한 연정의 마음을 잘 표현한 시가로서 화자를 둘러싼 배경과 자연물을 활용하여 임에 대한 간절함을 잘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이 작품은 이별의 상황을 신의로 극복하려는 모습에서 더 나아가 안분지족의 일념으로 자신의 부정적 상황을 견디려는 선비로서의 자세를 드러낸다는 점이 특징이다.

- ① ‘가을밤’과 ‘적막한 방’은 화자를 둘러싼 배경으로, 임과 이별하고 외로워하는 화자의 정서와 조응되는군.
- ② ‘동창’에 비친 ‘달’은 임을 떠올리게 하는 대상으로, 임에 대한 화자의 간절함을 느끼게 하는군.
- ③ ‘언약’을 ‘믿고’ 기다리려는 행동은 화자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임에 대한 화자의 신의를 보여주는군.
- ④ ‘초생’의 ‘달’과 ‘보름’의 달의 대비로, 임과의 재회가 어려운 화자의 부정적 상황을 강조하는군.
- ⑤ ‘초막’과 ‘죽’은 화자의 태도와 관련된 소재로, 화자가 자신의 현실을 안분지족의 정신으로 견디려고 함을 알게 하는군.

45.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회상 속 고향을 ‘도라지꽃, 하늘 색깔’의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여, 고향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② ㉡: ‘여름’과 ‘감’을 감각적으로 표현하여, 고향의 계절감을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 ③ ㉢: 음성상징어를 활용하여, ‘어린 시절’ 순수했던 추억에 정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④ ㉣: 말줄임표를 사용하여, 고향의 ‘산그늘’과 ‘아낙들’을 따라다니던 추억에 여운을 주고 있다.
- ⑤ ㉣: ‘나의 고향’을 이루는 ‘생각들’을 점층적으로 확대하여, ‘나’가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